

# 광주 초중고생 절반 하루 2시간 이상 유튜브·웹툰 시청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44% “학습 정보 검색은 30분 미만”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휴대전화 이용시간 크게 늘어  
디지털 매체 사용 교육 강화해야

광주지역 초·중·고생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이 하루 2시간 이상 유튜브와 웹툰을 시청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늘고 있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은 고작 30분 정도만을 학습 관련 정보 검색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매체를 접할 기회가 늘어난 만큼 디지털 매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 산하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해 광주지역 초·중·고생 1만 3500여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휴대전화로 유튜브, 웹툰을 시청하는 평균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전체의 28.4%로 가장 많았다.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8.3%, ‘3시간 이상’ 17.6%로 1시간 이상 시청 학생이 64.3%에 달했다. ‘30분 이상~1시간 미만’ 18.2%, ‘30분 미만’ 11.5%였다.  
휴대전화로 게임을 즐기는 하루 평균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전체의 20.9%로 가장 많았다.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9.8%, ‘3시

간 이상’ 9.2%로 1시간 이상 게임을 즐기는 학생이 39.9%였다. ‘30분 이상~1시간 미만’ 17.8%, ‘30분 미만’ 18.3%였다. 게임을 하지 않은 학생은 24.0%였다.  
학습 관련 정보 검색 시간은 30분 미만이 전체의 44.5%로 가장 많았다. ‘30분 이상~1시간 미만’ 18.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9.7%,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2.2%, ‘3시간 이상’ 1.5%였다. 학습 관련 정보 검색을 하지 않은 학생도 23.6%나 됐다.  
SNS 사용 시간과 관련, ‘사용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28.3%로 가장 많았고 ‘30분 미만’이 20.7%로 SNS 활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이 병행되면서 가정 등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휴대전화를 통한 유해 콘텐츠 접촉도 증가했을 것이라는 게 광주교육정책연구소의 설명이다.

**?**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가 미디어에 효과적으로 접근해 정보·문화 콘텐츠를 선택하고 분석·감상하는 통합적 능력을 가리킨다.  
이런 상황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과다 사용과 유해 콘텐츠 접속에 대한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강모(42)씨는 지난해 아들과 휴대전화 이용 문제로 1년 내내 씨름했다고 털어놓았다. 일주일에 1~2일만 등교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게 되면서 자녀의 휴대전화를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꿔줬는데,

사용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게임하는 시간도 많아져 잔소리하는 날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초·중·고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때 미디어 교육 비중을 키우고, 각학년별로 가르칠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의선 연구위원은 교육부 의뢰로 연구한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각 교과(목)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들의 연수와 자체 연구조직 구성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광주지역 초·중·고생 전체의 95.5%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코로나 극복 힘 내세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이 9일 오전 북구 임동 봉사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광주지역 감염병 전담 병원 의료진들과 감염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밀반찬을 만들어 포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4년간 272건... 115건, 방호설비 미설치 원인

방호설비 설치 사업장 사고는 4건  
제조업종의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산재 사고의 절반은 방호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위험 기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위험 기계에 방호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9년 4년 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272건

가운데 사고 발생 기계가 방호 설비 설치 대상인 경우는 132건(48.5%)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방호 설비 설치 대상인 기계에서 발생한 사고 중 방호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은 115건(87.1%)이나 됐다.  
방호 설비를 설치했음에도 발생한 사고는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3건은 방호 설비를 부적절하게 설치한 경우 등이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방호 설비조차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

는 얘기다.  
끼임 사고가 근로자의 부주의보다는 사업주의 무관심에 따른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방호 설비 등을 제대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 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안전 의식도 제고돼 산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안전장비도 없이 작업하다 숨진 목숨값 겨우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이라니...

광주 광산구 철거공사 사망사건  
검찰 구형량에 유족들 신음  
내달 15일 선고 공판 결과 주목

“안전 장비도 없이 7m 높이에서 작업하다 숨진 목숨값이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이라는 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9일 오전 광주지법 402호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씨 가족들은 재판장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광주시 광산구 사암로 철거공사 현장에서 7m 높이의 공장 지붕 위에 올라가 패널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A씨가 있던 현장에는 난간 또는 추락 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았고 당시 사업주측은 작업 과정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점을 들어 당시 공사를 책임진 회사 대표 B(54)씨와 해당 회사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기소했고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을 듣고 있던 산재 피해 가족들은 신음했다. 검찰 구형량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얼굴과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다. 이 때문인지 가족들은 검찰 구형 뒤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은 뒤 하소연했다.  
A씨 가족은 “B씨는 우리들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형량이 적게 나올 줄 알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A씨 가족의 발언은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확대·강화 요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당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다”며 관련법 위반 범죄에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해 1~10월 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1심 사건의 처리결과를 분석, 실형이 선고된 것은 1.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5일 열린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아침 술 깨지 않고 경찰서 찾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경찰서를 찾았던 소방공무원이 음주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3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경찰서를 찾아 개인적인 행정 업무를 보려다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